

No.36

# Japan Weekly Digest

2010. 5. 24 ~ 5. 30

## □ 금주의 이슈

- 한·중·일, 환경·생명공학 공동연구기금 설치
- OECD, 일본 경제성장을 대폭 상향 (1.8%→ 3.0%)
- 삼성, 일본교수와 휘는 디스플레이 공동개발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, 美·日 공동성명 발표
- 한·중·일, 투자협정 체결 합의
- 법인세 인하특구 설립방침 발표

##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경산성, 베트남 3조엔 규모 인프라사업 교섭
- 경산성, “차세대에너지 실증사업” 추진
- 도시바, 미국 우라늄농축회사에 1억 달러 출자

## □ 일본지식리포트

- 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 : 와리칸(割り勘)



**한일경제협회**  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,  
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Tel.02-3014-9888)

## ○ 한·중·일, 환경·생명공학 공동연구기금 설치

- 일본경제신문은 25일, 한·중·일 3국이 환경·생명과학분야의 공동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한 펀드「동아시아 리서치 펀드」(가칭)를 2011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
- 3개국이 자금을 출자하여 대기오염이나 감염증 등 공통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목적
  - \* 3개국이 공동연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처음이고 29~30일 개최되는 한·중·일 정상회담에서 발표 예정
- 3개국이 각각 연구자를 공모하고, 한 장소에 모아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, 젊은 연구자 교류도 검토

## ○ OECD, 일본 경제성장을 대폭 상향 조정(1.8% → 3.0%)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26일, 신흥국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일본, 미국 등의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
- 금년 전망치는 한국이 4.4% → 5.8로, 유로권도 0.9% → 1.2%로 상향 조정하고, 유럽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경고

## ○ 삼성, 메이조대학 교수와 휘는 디스플레이 공동개발

- 일본경제신문은 25일, 삼성그룹과 메이조대학의 이이지마 교수가 얇고, 휘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재료를 개발했다고 보도
- 이 재료는 조달이 쉬운 탄소로 액정TV의 경량화, 태양전지 발전성능 향상, 새로운 디스플레이 상품화 등에 이용될 것으로 보임
  - \* 이이지마 교수는 나노테크 분야의 권위자로 노벨상후보이며, “일본의 연구성과에 주목해 제품에 연결시키는 능력에서 삼성 등 한국기업이 일본기업보다 빠르다”고 언급
- 동 신문은 삼성그룹이 일본의 최첨단 연구성과를 활용하고, 일본의 전기 메이커와 경쟁격차를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
  - \* 삼성그룹은 도쿄공업대학의 호소노 교수, 규슈대학의 기쿠치 교수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

## ○ 후텐마 미군기지 해노코로 이전, 美·日 공동성명 발표

- 일본과 미국정부는 28일, 양국 외무·국방장관 협의체인 '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' 명의로 후텐마를 오키나와 해노코로 이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
-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하토야마 총리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후텐마 이전계획을 최종 확인
- 후텐마 미군 기지를 기존 합의안인 오키나와 현 나고시 해노코의 미군 캠프슈워브 연안부와 주변 해역에 1800m의 활주로를 건설해 이전하기로 한 것임
  - \* 후텐마 이전에 관한 합의는 06년 美·日정부가 합의한 계획과 거의 같음

## ○ 한·중·일 투자협정 체결 합의

-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·중·일 3개국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한·중·일 투자협정을 금년 여름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
- 한·중·일 투자협정 협상은 지난 2007년 1월, 3개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합의된 것으로 3국 간 투자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와 투자기업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됨
- 3개국 FTA협약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, 이달에 시작된 산관학 연구회를 2012년까지 마무리하자는 방침도 확인
- 이 회의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, 나오히마 경산상, 중국 천더밍 상무부장이 참석하여 공동문서를 채택하였음
  - \* 공동문서에는 「2~3개월 이내에 실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」이라고 명기되었음

## ○ 日정부, 법인세 인하특구 설립방침 발표

- 日정부는 23일, 일본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「성장전략특구」를 창설할 방침을 밝혔음
-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내림으로서 기업의 활력을 경제성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
- 이런 내용을 6월에 발표예정인 정부의 신성장 전략에 포함시키고, 필요한 법안을 2011년 국회에 제출하여 특구제도를 시작하려는 구상
- 오사카부 지사는 23일, 후루카와 국가전략실장(내각부 부장관)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「오사카를 아시아 각지와 연결하는 중심도시로 만들고 싶다」고 언급하면서 오사카의 특구지정을 요청

○ 경산성, 베트남 3조엔 규모 인프라사업 교섭

- 베트남의 최대 에너지기업인 국영 페트로 베트남(PVN)은 25일,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3조엔 규모의 대형투자 계획에 대해 일본기업과 우선적으로 교섭한다고 발표
- 정부가 민간과 연계하는 관민파트너십(PPP)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시킬 계획이며, 일본기업의 기술이나 자금을 활용해서 제유소나 발전소 등 인프라시설을 건설할 예정 \* 제휴협상은 JETRO가 중개하였음
- PVN회장은 6월21일 일본을 방문하여 JETRO, 경제산업성과 교섭할 예정이지만, 교섭이 좌절될 경우 한국기업과 교섭하겠다고 표명

○ 경산성 “차세대에너지 실증사업” 산관학 공동으로 추진

- 도쿄대학 등 산관학 28개법인은 경제산업성이 공모한 「차세대 송배전 계통 최적 제어기술 실증사업」을 수탁했다고 발표
- 재생가능에너지의 대량도입과 전력계통의 안정화 등 양립을 목적으로 공동실증사업을 실시하는 것임
- \* 이 실증사업은 정부가 목표로 지정한 「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2800만kW」의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전력계 인프라 실증실험임
- 구체적으로 계통측(차세대 전압제어기기 등)과 수요측(전기자동차, 히트펌프식 온수기 등)의 양면에서 배전선전압상승·잉여전력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확립과 관련 기기를 개발할 예정

○ 도시바, 미국 우라늄농축회사에 1억 달러 출자

- 도시바는 25일, 미국 우라늄 농축회사 USEC에 1억달러(약90억엔)를 출자, 공급망을 강화시켜 원자력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발표
- 도시바는 원자력발전 설비에서 연료까지를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
- \* 도시바는 이번 출자로 농축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나오시마 경산상은 「원자력분야에서 日·美협력 강화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고 싶다」고 언급

□ 『일본계 자동차 회사의 중국시장에서 성장과제』 스미토모은행, 5월25일

- 중국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글로벌시장에서의 승패도 좌우. 일본자동차 회사는 비용저감, 니즈에 맞는 상품라인 확충, 내륙부에서 판매망 구축이라는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

[http://www.sumitomotrust.co.jp/RES/research/PDF2/710\\_3.pdf](http://www.sumitomotrust.co.jp/RES/research/PDF2/710_3.pdf)(출처)

□ 『한국의 대일무역적자』 아시아경제연구소, 5월 26일

- 적자의 원인은, 일본 소재·부품이 아니라 일본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, 특히 화학, 철강, 기계기기임. 또 수입은 주로 한국 대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본중소기업이 한국에 진출했다고 해도 적자가 삭감되지 않을 것임

[http://www.ide.go.jp/Japanese/Publish/Download/Report/2009/2009\\_430.html](http://www.ide.go.jp/Japanese/Publish/Download/Report/2009/2009_430.html)(출처)

□ 『가치를 창조하는 물 비즈니스의 도전』 긴키경제산업국, 5월26일

- 간사이에는 물 비즈니스 관련 기술로 경쟁력을 보유하는 기업이 많음. 물 시장규모는 100조엔 규모로 성장할 전망. 이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제해결형의 시스템화·패키지화, 즉 솔루션시스템 제안과 발상 전환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개발 추진이 중요

[http://www.kansai.meti.go.jp/7kikaku/21FY\\_WATER/water2.pdf](http://www.kansai.meti.go.jp/7kikaku/21FY_WATER/water2.pdf)(출처)

【금주의 일정】

일자	주요 일정
5/24(월)	○ 월례경제보고 발표(내각부) ○ 5월 금융경제월보 발표(일본은행) ○ 3월 전산업활동지수 발표(경산성)
5/25(화)	○ 오쿠 전국은행협회 회장 기자회견
5/26(수)	○ 금융정책결정회합 발표(일본은행) ○ 4월 기업서비스물가지수 발표(일본은행) ○ OECD 세계경제전망 예측 발표
5/27(목)	○ 일본경단련 정기총회 개최, 요네쿠라 회장 선출
5/28(금)	○ 4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(총무성) ○ 4월 가계조사 발표(총무성) ○ 4월 실업률 발표(총무성) ○ 4월 상업판매통계속보 발표(경산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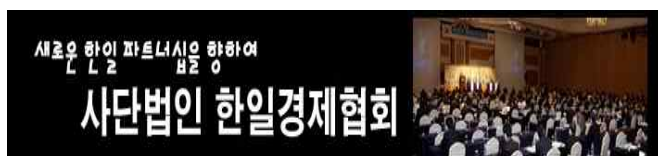
\* 5월 29~30일 한·중·일 정상회담 개최 (제주도)

~ 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 ~  
와리칸(割り勘)

일본에서 여럿이 식사를 한 후 자기 몫을 각자 나눠 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, 이는 '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나도 피해를 보지 말자'는 것에서 시작되는 듯함

< 일본식 개인주의의 상징 와리칸 >

-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주는 것도 썩 내키지 않아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는 일본사람의 특징은 와리칸(割り勘)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
  -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다양한 대인관계가 어긋나지 않고 순조 롭게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무언가의 약속이 있고 서로 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성역이 있음
  - 그 약속이 깨지게 되고 성역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소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
  - 일본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,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만의 약속된 행동을 와리칸 문화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음
- 누구와 함께 혹은 여럿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버스를 타는 모든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오로지 내 것만 생각하면 됨
  - 내가 한번 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얻어먹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인관계의 무언의 약속이 바로 와리칸임
  - \* 상사와 부하직원, 스승과 제자 간에도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와리칸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



< 일본 특유의 문화적 색깔 와리칸 >

- 문화의 질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으며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을 수도 없음
  - 한 나라 문화는 역사적으로 혹은 발전과정에서 그만한 생성 이 유가 있는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와리칸이 우리와 다르다고 어긋난 시각으로 보서는 안 될 것임
  - 일본사람들은 왜 와리칸을 하는가? 이런 물음에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편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데 편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서로 구속되기 싫다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색깔이 있기에 그럴 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됨
- 일본은 '우리'가 되기 전에는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되는 사회 를 고수 하고 있으며 집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면 와리칸 이상의 싸늘함을 인간사에서 느끼게 됨
  - 일본이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판매기 대수 가 많다는 것으로 가히 일본은 자동판매기의 천국이라 해도 지 나침이 없을 정도임
  - 인구대비 자동판매기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으로,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료 자판기에서부터 담 배, 잡지, 신문, 꽃, 여성용 스타킹에 이르기까지 기계와 맞대고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 너무나도 다양함
  - \* 그렇다면 왜 일본에는 자동판매기가 많은 것일까? 음료수를 파는 조그만 슈퍼마켓 앞에도 버섯이 다양한 음료를 동전으로 손쉽게 빼먹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좁은 공간을 확보 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
  -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기계와 마주 보고 용무를 해결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됨
  - \*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관계보다 동전만 넣으면 얻고 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됨